

면역형광항체법에 따라 그 양성반응정도를 1+~4+로 분류하였을 때(항체가 1+; 64~256, 2+; 256~1,024, 3+; 1,024~4,096, 4+; 4,096~32,768) 2+~4+ 69예중에 전형적인 신증후출혈열이 59예(85.5%), 비전형적인 신증후출혈열이 10예(14.5%), 1+ 12예중에서는 전형적인 신증후출혈열이 6예(50.0%), 비전형적인 신증후출혈열이 6예(50.0%)이었다. 따라서 양성반응의 정도는 임상적으로 전형적인 발병상태와 상관관계가 있었다($p < 0.025$).

3) 항체가가 낮은(1+; 64~256) 비전형적 신증후출혈열 환자가 정확히 어떤 질환을 앓고 있었는지는 불명이나 ① 과거의 불천성 감염결과 생긴 잔여 항체일 뿐만 아니라, ② 경미한 신증후출혈열이거나, ③ Hantaan 바이러스와 항원적으로 유사한 바이러스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이 방면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 26 —

소아에 있어서 Henoch-Schönlein 신염

서울의대 소아과
김종윤 · 최 용 · 고광욱
병 리 과
김 용 일

단백뇨 유무에 관계없이 혈뇨가 있었던 환자에서 Henoch-Schönlein 증후군에 특징적인 자반이 있으며, 복통과 관절통 중 하나 혹은 둘 모두 있어서 Henoch-Schönlein 신염으로 진단 받았으며 신생검을 시행한 33례에 대해 임상 병리학적 고찰을 하였다.

총 33례 중 남자가 20례, 여자가 13례로 남녀 비율이 1.5:1이었으며, 평균 발병 연령은 10년 1개월이었다. 초기 임상적 발현을 보면 신증후군과 급성 신염 증후군이 동반된 경우가 8례(24%)이었고, 신증후군과 혈뇨가 동반된 경우가 9례(27%)이었으며, 단백뇨 유무에 관계없이 혈뇨로 온 경우가 16례(48%)이었다. 피부병변과 신증상의 전후 관계를 보면, Henoch-Schönlein purpura로 진단 받은 후 추적 관찰중 신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16례(48%)이었고, 신증상과 피부병변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가 11례(33%)이었으며, 신증상이 피부병변보다 먼저 온 경우가 6례(18%)이었다.

고혈압이 7례(21%)에서 관찰되었고, 백혈뇨가 11례(33%)에서 관찰되었으며, Selectivity index를 측정 한 21명 중 0.20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써 17례(81

%)이었으며, 0.10이하인 경우가 1례이었고, 0.10에서 0.20사이인 경우가 3례이었다.

첫 신증상 발현 후 신조직 생검까지의 기간은 평균 7개월이었으며 1개월에서 2년 7개월사이였다. 광학 현미경상의 사구체의 변화는 ISKDC의 분류에 의하면 grade II가 1례, IIIa가 5례, IIIb가 18례, IVa가 1례, IVb가 5례, Vb가 3례이었다.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약 1년 9개월이었으며 1개월에서 6년 10개월 사이였다. 마지막 추적 관찰시의 임상 상태는 Meadow와 Counahan의 분류에 의하면 state A가 3례(9%), state B가 13례(39%), state C가 11례(33%), state D가 6례(18%)이었다.

1978년 1월에서 1985년 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과에서 Henoch-Schönlein 신염이라 진단받았으며, 신생검을 시행한 33례에 대해 임상 병리학적 고찰을 하였다.

— 27 —

소아에서 미세수술에 의한 신우성형술에 관한 임상적 고찰

연세 원주의대 비뇨기과
김 광 진
연세의대 비뇨기과
최 형 기
소 아 과
이 재 승

근래 임상과에서 초음파촬영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소아에서 선천성 신우요관이행부착에 의한 수신증이 진단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한 폐쇄성 수신증 환자의 신기능 회복에 관한 병태생리학적 연구의 발달로 조기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편 신우성형술을 시행함에 있어 과거에는 신루관이나 요관부목을, 근년에는 Double-J 혹은 Double-Pigtail내요관 카테터를 설치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소아환자에서는 이들에 의한 요로감염, 수술후 관리, 특히 제거시 제마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최근에는 미세수술을 이용하여 수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들의 설치없이 신우성형술을 시행하여 좋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1982년 1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소아

환자 중 신우요관이행부협착에 의한 수신증 환자에서 신우성형술을 시행하였던 12례를 고찰하였던 바, 최근 미세수술을 시행하였던 5례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관찰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 28 —

성인 다낭종신 47예의 임상적 고찰

가톨릭의대 내과

양종복 · 윤호중 · 표석주
최의진 · 장윤식 · 윤영식
손호영 · 강성구 · 방병기

성인 다낭종신(adult polycystic kidney disease)은 남성 신질환의 가장 흔한 형태로서 혈액부석이나 신이식 대상의 5~10%를 차지하고 있다.

축지되는 신비대, 신부종증, 고혈압, 혈뇨등으로 비교적 진단이 쉬운 성인 다낭종신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있고, 간을 비롯한 타장기의 병발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연자들은 1972년 1월부터 1985년 3월까지 가톨릭의대부속 강남성모병원, 성모병원 및 수원성빈센트 병원에 내원한 성인 다낭종신 47예에 대한 임상적 고찰을 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1) 연령은 51세에서 61세 사이에 가장 많았고, 남녀비는 30 : 17이었다.
- 2) 임상증상은 축지되는 신비대(75.6%), 신부종증(64.4%), 고혈압(53.3%), 및 혈뇨(40.0%)의 순이었다.
- 3) 타장기의 병발은 간(31.9%), 췌장(6.4%), 및 비장(4.3%)의 순이었다.
- 4) 발전당서 serum creatinine 치는 1.3 mg/dl 이하가 47.7%로 가장 많았고, 1.4~5 mg/dl 가 21.5%였다.
- 5) 6예에서 본 질환의 가족력을 관찰할 수 있었다.

— 29 —

만성 신부전 정도에 따른 산·염기 및 전해질 구성의 변화

연세의대 내과

주현영 · 윤정환 · 하성규
이호영 · 한대석

만성 신부전증에서 총 산 배설능의 감소로 대사성

산혈증이 초래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경한 신부전 상태에서는 혈청 총 CO₂ 농도는 다소 감소하나 상대적으로 혈청 chloride 농도가 증가하여 혈청내 unmeasured anion 의 농도, 즉 anion gap은 정상 범위로 유지되나 점차로 신부전이 심해짐에 따라 혈청 총 CO₂ 농도의 감소와 anion gap이 증가됨을 볼 수 있다. 이에 연자 등은 산·염기 평형 및 전해질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약물 복용이 없으면서 일정 기간동안 혈청 creatinine 의 큰 변동이 없었던 만성 신부전증 환자 215명과 정상 대조군 21명 등 총 236명을 대상으로 신부전 정도에 따른 혈청 creatinine 증가와 산·염기 평형, anion gap 및 전해질 구성 변화의 경량적 연관 관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1) 정상 대조군의 혈청 총 CO₂ 농도는 25±3.3 mEq/l 이고, 中等度 신부전군(혈청 creatinine 치, 2~4 mg/dl)은 23±3.9 mEq/l 이었으나 重等度 신부전군(혈청 creatinine 치, 4 mg/dl 이상)은 17±4.7 mEq/l 로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신부전 정도에 따른 혈청 creatinine 증가와 혈청 총 CO₂ 농도 사이에 직선적인 역 비례관계가 있었다.

2) 혈청내 sodium 농도는 대조군이 140±4.1(mEq/l), 中等度 신부전군은 139±4.8, 重等度 신부전군에서는 136±6.0로 신부전 정도에 따른 sodium 농도 변화는 없었다. 혈청내 potassium 농도는 대조군이 4.0±0.4(mEq/l), 中等度 신부전군은 4.5±0.8, 重等度 신부전군에서는 5.0±1.0로 신부전이 심해짐에 따른 뚜렷한 혈청 potassium 농도 증가를 볼 수 있었다. 혈청 내 chloride 농도는 대조군이 104±5.1(mEq/l), 中等度 신부전군은 105±5.8, 重等度 신부전군은 104±8.7로 신부전 정도에 따른 혈청 chloride 농도 변화를 볼 수 없었다.

3) 혈청내 unmeasured anion 농도는 대조군에서 11±5.3(mEq/l), 中等度 신부전군에서는 11±4.5, 重等度 신부전군은 16±5.7로서, 후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그리고 신부전 정도가 단계적으로 심해짐에 따라 unmeasured anion 농도는 직선적 비례로 증가되어 혈청 creatinine 이 23.21±2.45(mg/dl)일 때 혈청 내 anion gap은 21.6±4.6(mEq/l)범위에 있었다.